

人和團結과 輿論에 立脚한 協會運營을

總會에서

會長 金 在 哲

오늘 本協會 第2回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會員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昨年 이 맘때 이 사람이 本協會 總務理事로서 이자리에서 여러분을 뵈고 滿一年만에 다시 뵈게 되니 대단히 반가운 마음 벅차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바입니다. 더우기 오늘 會長으로 부터 招待狀을 받고 여기 參席한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絶對的인 支持로서 意外로 會長職에 當選되고보니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알수없는 바입니다.

이제 시간도 相當히 늦어졌고 그래서 간단히 앞으로 會長으로서 이 協會를 여러 理事님들과 그리고 여러 會員님들과 같이 運營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한바를 간단히 말씀 드림으로서 會長 就任辭에 對할까 합니다.

오늘 會議에서 여러가지 審議過程에 있어서 우리 建築士의 權益保障이라든지 或은 社會的地位向上이라든지 기타 우리에게 利益이 될만한 여러가지 좋은 意見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것은 이 協會의 運營이나 기타 모든 社會 일을 막론하고

첫째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 저는 무엇보다도 人和에 注重해 가지고서 이 協會를 여러 理事님들과 같이 運營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過去에 本協會 總務理事로서 여러분들 한테 여러가지로 失禮된 點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모자라서 여러가지로 誤解를 받은 點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 點은 제가 過去 一年동안에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를 支持해 주신분도 계시지 마는 또 저를 反對……失禮말씀입니다 마는 그것은 結果를 보아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支持 안하신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支持해 주신분 보다도 앞으로는 支持안해 주신 분들의 그 意見을 존중해서 이 協會를 運營해 나갈까 합니다.

둘째는 저로 말씀 드릴것 같으면 모든것을 이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輿論에 立脚한 協會의 運營을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저 시골 말단에 있는 會員까지라도 그 분들의 意見을 존중해서 그것을 될수있는 대로 協會運營에 反映시킬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 協會를 運營해 갈까 합니다.

그 點 먼저 제마음 가진바를 말씀드리고 具體的인 方案에 있어서 어떤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權益과 결부하여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 關係當局에 계시는 여러분도 와 계시지마는 무엇 보다도 우리의 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建築士法 第四條 乃至 第五條 특히 第五條를 削除하고 第四條를 大幅的으로 완 하여 가지고서 모든 建築物의 設計監理는 建築士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方向으로 이 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近來에 잠깐 美國의 建築士協會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새로된 美國의 建築士法을 가져와서 建設部 當局에 제가 전달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美國에서는 建築士가 아니면 設計가 안되고 監理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建築士法 第五條를 볼것 같으면 建坪 30평방미터 以下는 建築士

가 아니라도 設計할 수 있다는것 이런 特殊條項이 있기 때문에 特히 이 比重이 建築件數의 半數以上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建築士의 權益擁護上 가장 重大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本部 理事로 계시는 朴永晚氏께서도 아마 여러가지로 주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全的으로 同意해 가지고서 이 法 改正에 있어서 立場을 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느나라를 보든지 1級 2級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法制定過程에 있어서 가장 손빠르게 얻을 수 있었던것이 日本의 建築士法이기 때문에 日本 建築士法을 답습해 가지고 1級이니 2級이니 하는 區分을 나누었습니다.

어디 1級建築士가 있으며 2級建築士가 있겠습니까? 제가 1963年度에 日本에 갔을때 日本建築士協會 常務理事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이 이 法을 通過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은 終戰後 2年後 입니다 우리로서는 解放後 2년에

그때 木手들이.....日本말로 잠깐 失禮합니다. 「도로」란 사람들이 相當히 數가 많기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通過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는 그런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木手 「도로」가 이 建築設計를 能히 해 나가고 지금 어떤 高度의 建築的인 製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法을 改正해 가지고서 2級을 撤廢하는 同時에 1級도 없고 2級도 없는 建築士 그레 가지고서 經過措置로서 2級은 빨리 1級으로 올리는 그런 方途를 講究 하려고 생각 합니다.

세째에 있어서 저는 建築士 事務所 運營에

있어서 여러가지 隘路點을 여러분도 나와 똑 같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建築士 事務所의 「인턴」제를 꼭 實施해야 합니다.

이것은 美國에서도 꼭 같은 建築士 事務所의 隘路點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할것 같으면 大學이라든지 또는 이런정도 卒業받은 사람이 3年の 實務 年限이 있을것 같으면 建築士 試驗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3年동안의 그런 「인턴」 制가 實施 안되기 때문에 5個月 있다가 나가는 사람 1年있다가 나가는 사람 옆집에서 요새 돈으로 말할것 같으면 3千원 더 줘도 나가는 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처럼 大學卒業生을 가르쳐 놓을것 같으면 全部 도망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먹은 建築士들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주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런 實情입니다.

이것이 美國뿐이 아닙니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 제 自身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建築士法에 있어서 이것은 특히 施行令에 反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마는 이 「인턴」 制가 절대 必要하다고 봅니다.

저는 꼭 이런 方面에 있어서 法的面에 있어서의 이 세가지는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던 工事監理라든지 이런 문제는 第5條 撤廢와 第四條의 극대화를 通해서 能히 解決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工事監理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도 여러가지 意見이 나왔습니다. 마는 稅率 乃至 課稅標準率의 引下 關係는 절대 必要한 것입니다. 다른 土木用役社에 있어서 제가 아는 範圍에 있어서는 最高 1割 내지 15퍼센트 以上 稅金을 내는 用役社가 없습니다. 유독히 이 建築士 事務所만은 소위 認定課稅라고 해가지고서 課稅標準率을 再昨年에 53「푸

로」이던 것을 43「푸로」로 引下되고 이번에 新聞紙上에 보니까 全體平均에 있어서 0.6「푸로」를 다시 引下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課稅 標準率의 0.6「푸로」가 다른데서 平均的으로 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建築士 稅率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랐는지 모른다. 그것은 알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稅務當局과 긴밀한 연락을 하는 同時에 또한 稅務技術的으로 이것을 解決하는 方途를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차차 연구하여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協會에 登錄된 會員이 오늘 現在 672名이라고 들었고 아마 今年에도 80名이 더 登錄할 것이라 豫想하고보면 近 7百餘名의 建築士가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經濟建設이라든지 全體國民의 所得面으로 보아가지고 建築士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1000원의 會費를 500원으로 여러분들이 引下 決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建築士의 貧困相 零細性을 如實히 證明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防止되겠는가?

自由企業時代에 어떻게 해서 그사람들의 自由行爲를 規制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次元을 높이 해가지고서 우리의 일 자리를 開拓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美國의 某 建築事務所에 가서 運營實態를 잠깐 보았더니 그사람들이 이런말을 합니다.

當身네 나라에 建築士가 몇名이나 있소? 제가 알기에는 2,000名이 있는데 開業한 사람은 한 600名이 되오 이런 말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신네들 나라에 우리가 듣기에 1년에 100「달러」 정도의 G.N.P 밖에 없는 國民所得에서 어떻게 600名의 建築士가 먹고 살수 있소? 이런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外國에 人力

을 輸出하시오 또 輸出 안할것같으면 당신네 나라에서 우리의 일을 좀 해주시오 이런말을 합니다. 그 例로서 「애란」 사람의 例를 들어 주었습니다 「애란」의 「더보린」 首都 政界장 옆에 큰 事務所가 있는데 몇 百名의 建築士가 있는 事務所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美國의 일을 비행기로 갔다가 거기서 處理해 가지고 비행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달라」를 버는 同時에 그사람들의 失業狀態를 解決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런面에 人力輸出이라든지 或은 用役을 都給말는다든지 或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단히 영리하신 서울市長께서 하시고있는 「푸로모터」 노릇을 한다는지 이런 어떤 方向을 通해가지고 우리가 一層 우리의 앞길을 開拓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해나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후속부대의 압력은 대단히 심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1년에 500餘名의 大學卒業生이 나오고 相當한 中等學校卒業生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建築士만 하더라도 아마 이번에도 數十名이 다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로 할것 같으면 50歲가 아니라 40歲 정도에서 心筋梗塞이 되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여러분들은 既成世帶로서 물러나지 않으면 아니될 때가 멀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解決하는 方法은 우리가 조금 次元을 높이고 視野를 넓혀가지고 解決하는 方法 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다른 角度로서 이 문제를 解決하는 方法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就任辭에 頭序없는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만 제가 會長으로서 就任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平素에 느끼고 있던 바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紹介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適切한 指導와 鞭撻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就任辭를 간단히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